

# 안산지부, '2005 중앙일보 서울마라톤대회' 참가

##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

마라톤 즐기며  
건강과 생활의  
활력 찾자



안산지부의 박선덕 중앙회 이사, 이명호 지부장, 구복회 운영위원장, 김명호 감사, 김종명 홍보위원은 지난 11월 6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5 중앙일보 서울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중앙일보 서울마라톤대회'는 1999년 중앙일보사가 주최하는 하프마라톤대회로 시작, 2001년부터 남자부문은 국제대회로 승격됐고, 이후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된다.

중앙일보·대한육상경기연맹·아시아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서울시·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송파구청이 후원하며, KBS가 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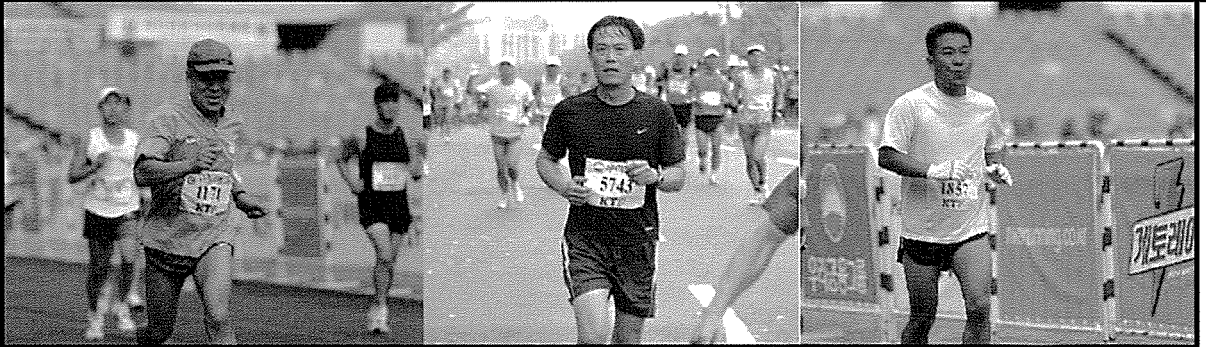
코스는 국제공인코스로서 마스터스 부문에는 풀코스·10km코스가 있으며, 엘리트 부문에는 풀코스만 열린다. 남자부문은 국제대회로, 여자부문은 국내대회로 치뤄졌다.

이 지부장은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기의 스포츠로 근력 및 지구력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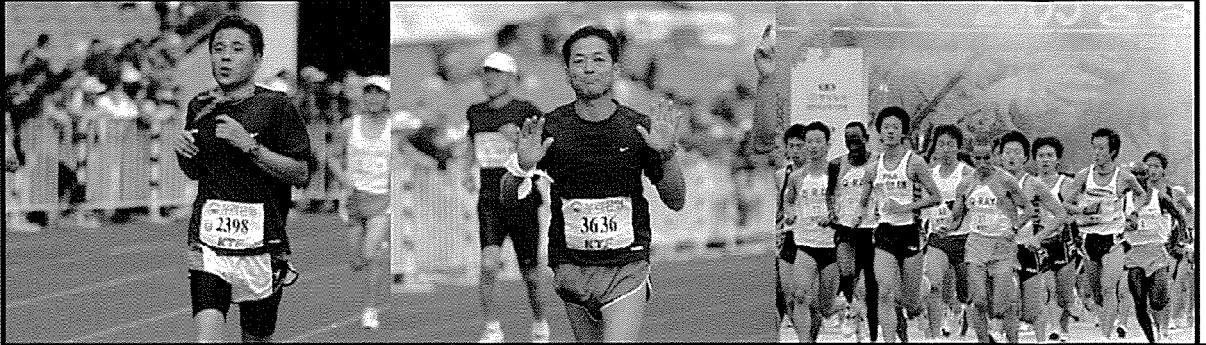
체력뿐만 아니라 순발력, 민첩성 등의 다양한 운동체력을 길러준다. 굳은 의지와 끈기로 고통을 인내하고 완주의 희열을 만끽하는 여정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며 다음 대회에는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여 달리는 기쁨을 만끽하자고 제안했다.

박 이사는 "달리기는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의 제한없이 어느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다. 웰빙으로 달리기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마라톤 대회의 종류가 다양해져, 참여 기회도 많아졌다.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다. 오늘 대회를 통해 나의 한계도 체크하고 러닝하이(running high)도 맞볼 수 있어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즐거워했다.

회원들은 참가자 모두 완주하여 기뻐했으며, 무엇보다도 회원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더욱 행복해 했다.



구복회 운영위원장(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명호 감사, 김종명 홍보위원, 이명호 지부장, 박선덕 중앙회 이사가 완주하는 모습.



## 중앙회 박선덕 이사, 안산 17기 아버지 학교 수료

중앙회 박선덕 이사가 안산 17기 수강생으로 아버지학교에 참여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어 국내 70개 지역 및 해외 18개국 50개 지역에서 약 51,000여명의 아버지가 수료했으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이사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파괴 등의 여러 사회적 상황으로 가정내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요즘,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찾고 가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사명 선언문

- 1)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 2)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
- 3) 매일 아내를 격려하며, 자녀를 축복한다.
- 4)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킨다.
- 5)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린다.
- 6)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
- 7) 일터에서 정직한 일꾼이 된다.
- 8)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한다..